

사찰경영연구 2차 세미나 '사찰 재정위기 해법은?'

사찰 중장기 계획 세워라

바야흐로 사찰도 경영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나 현실은 경영은커녕 수입예산조차 세울 수 없어 '특별회계'가 설정되고, 인건비부터 절약하다보니 신도와 인제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효립)는 '사찰 재정 운영 진단 및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30일 제2차 사찰경영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초발제에 나선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는 '사찰재정의 대안과 해법'을 주제로 현 상황을 점검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개최한 '사찰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는 사찰의 재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찰 후원회 조직 정기적 회비 확보를

중무행정학과 설립해 인재 양성해야

이에 따르면 불자들은 시주금을 1년에 2번 이하로 내고(1989년 기준), 전체 불자 중 4.6%만이 주회 이상 종교행사에 참가(1995년 기준)하는 등 불교 신령층은 매우 얇다. 반면 2006년 조계종 사찰 세입부를 살펴 보면 사찰 재정 수입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불공수입과 불전수입, 시주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수입원이었다.

김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사찰 사업계획을 설정하는 한편, 신도들이 찾기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사찰을 재편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4~5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장기비전을 수립해 중무원과 신도회에 나아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정몽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사찰에도 '작은 돈을 간간하게 운영하는' NGO단체들의 회비확보구조와 운영방법을 도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사찰신도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를 벌여 월1회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찰 후원회 등을 조직해 정기적인 회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불우이웃 정기후원'이나 '노스님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이 기금 자체의 성격에 분명히 해 후원금을 내는 신도들에

게 '가치'를 분명히 심어주고, 예·결산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약 20% 정도의 일정액은 기금을 조성한 재단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찰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사찰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사찰 중무행정을 현재의 7직에서 신도 중심으로 맞춰 개편할 것, 종단도 '도심·농촌, 전통사찰 및 포교당' 등으로 사찰로 분류해 경영전략을 개발할 것 등의 제안이 쏟아졌다.

인재 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대부분의 스님들은 예산회계법을 모르는 등 재정회계에 무지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며 "특히 종립대 및 승가대에 '중무행정학과'를 설립하는 방안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remy@buddhapia.com

어린이포교 기획·집행할 단체협의회 19일 발족

조계종이 실시하는 어린이포교사업을 평가하고 전문적으로 기획 및 집행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역량이 결집된다. 11월 30일 어린이포교단체 실무자 및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포교팀 등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모여 어린이포교단체협의회(회장 동범·이하 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어린이포교 역량 극대화를 위해 △어린이포교 지도자 양성 △포교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어린이포교에 대한 행정적 제도 마련 △단체 연대활동 강화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한달에 한번 정례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또 12월 19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병행한다.

협의회 참여단체는 (사)동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총 10곳이다.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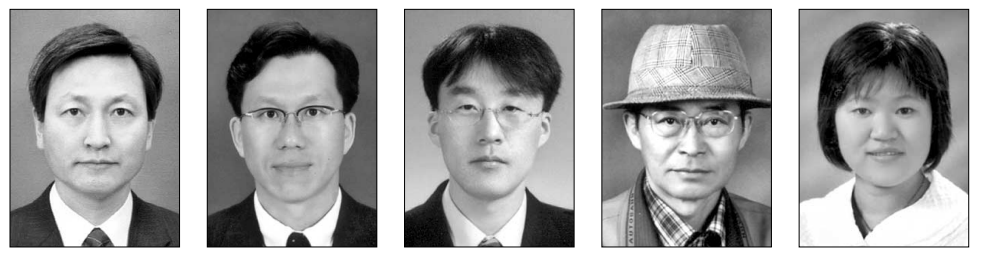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 강원교직자협 회장 재임



강원 교직자협의회는 11월 30일 공주 통도사에서 총회를 열고 우진 스님(통도사 강주·사진)을 비롯해 회장단을 연임시켰다. 우진 스님은 1980년 사미계, 91년 비구계를 수지했고 통도사 중장 등을 역임했다.

강원교직자협의회는 11월 29~30일 통도사에서 열린 연수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교직자의 사명과 자제'와 허탈 한국화인제미칼 상인 고문의 '사회 변화의 흐름과 불교의 역할' 주제 특강 등을 들었으며, <신문> <신문> <도서> 교재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남동우 기자



현직 부장판사·교수 등 국제포교사로

이메일·웹캠 이용 시험친 加교민 등 27명 합격

조계종 포교원이 11월 29일 발표한 2006년도 국제포교사 선발고사 결과 현직 부장판사가 합격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박홍우(55)씨는 사법시험 22회 출신으로 82년 춘천지법 판사 부임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총불교학회장 회장 출신인 박씨는 사법연수원 드라마 법우회 지도교수, 서초반야회 총무 등을 역임했다.

로 시험을 치러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 부등산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백동하(46)씨는 회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무불선원에서 참선을 수련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간 백씨는 서광사 참선수련모임 '서광수련회'를 결성했으며, 서광사 학생부·청년부 지도법사를 맡고 있다.

백승봉(35)씨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방의국어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 대원어교·외교 교사

생활을 한 뒤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최고령 합격의 영예는 이광표(64)씨가 안았다. 한국교육개발원 도덕연구실장과 방송통신교육연구실 전교방송통신 교육분야 연구원을 역임한 이씨는 공주 감사에서 팀플스테이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현재 동국대 불교학전공 4학년에 재학중인 장혜정(23)씨. 장씨는 김상사 어린이 법회 간사 출신이다.

합격자 27명은 12월 9일 오후 2시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리는 국제포교사 11기 품수식에 참가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총장 후보 보광 스님·이항우·오영교 前장관

12월 이사회의 최종 결정

동국대 제16대 총장 후보에 보광 스님(선학과), 이항우 교수(경찰행정학과), 오영교 前 행사부장관이 추천됐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지홍, 이하 총추위)는 12월

1일 학교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광 스님, 이항우 교수, 오영교 前 장관을 차기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세 후보는 각각 24표씩을 얻었다.

동국대 제16대 총장은 12월 12일 오후 3시 학교 본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11월 28일 학교 본관에서 제223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 13명 중 4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토록 하는 등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교회·동사무소 손잡고 '복지선교'

성북구 종교편향 '물의'

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종교계와 손을 잡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구성된 '교(敎)-동(洞)협의회'가 개인교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성북구 관내 30개동 전체에 구성된 '교-동협의회'에는 불교 사찰, 가톨릭 성당, 원불교 교당이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수)는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범불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범불교대회는 12월 14일, 20일, 22일 오후 2시 성북구청 임시청사앞에서 열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11월 30일 사과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박병영 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조계종 중신회 22일 행사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12월 22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전통이 젊음으로 하나되는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행사를 펼친다.

행사는 서울·경기지역에서 4만 여명이 동참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팔죽 나누기'를 비롯해 새해달력 나눠 주기, 퓨전국악·비보이·난타 공연 등이 펼쳐지는 문화공연 등으로 이뤄진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1월 13일 중무회의를 열고 팀 자율행정 강화와 중무행정 효율화를 위해 중앙중무기관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팀제로의 직제 개편 이후 1년만의 일이다. 이번 직제 개편은 현재 운영중인 2~3명 중심의 소규모 팀제를 4명 이상의 팀제로 확대해 기존의 28개의 팀을 18

개의 팀으로 재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중무행정 교구이양 T/F팀, 어린이포교팀을 신설해 총무원장 스님이 친명한 어린이 포교 등 종단 전략 과

제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조직개편 그 후... 직속성과 중무원의 전문성 활용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번 조직 개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지난 5월 전체 중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제개편 설문조사다. 하지만 단순히 인

행정 보다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년도 안되어 다시 직제를 개편한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지속성과 중무원의 전문성 활용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번 조직 개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지난 5월 전체 중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제개편 설문조사다. 하지만 단순히 인

직조사에 불과한 내용이지 조직 운영상의 합리적인 지표들 통해 그동안 실시해온 팀제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월 18일 조계종 정기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된다. 조직 개편보다 향후 조직 운영이 더 중요하다. 늘어나는 중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종단의 전략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중앙중무행정기관의 조직 운영을 기대해 본다. ■김무식(취재부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제4회 학술 세미나

- ◆ 주 제 : 불교학 관련 &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 ◆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요일) 오후1시 - 6시40분
- ◆ 장 소 : 서울 신촌 봉원사 범음대학 세미나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02-392-3234
- ◆ 주 관 : 영산재 보존회, 옥천범음대학, 한국불교대학교 중 봉원사
- ◆ 후 원 : 한국불교대학교 총무원, 불교음악연구소

진행순서

[등 록] 12월 11일 12:40-12:55 [개회식] 12월 11일 13:00-13:30

- 사회 : 영산재 보존회 스님
- 개회인사 조환우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장, 봉원사 주지)
- 격려사 김구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영산재 보존회 총재)
- 격려사 마일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옥천범음대학 학장)
- 격려사 이기봉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영산재 연수원장)
- 특별초청 인사 -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전통예술학회 회장,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소장)

[발 표] 12월 11일 13:00 - 18:40

- 진행 : 법현스님(동국대 한국음악과교수, 영산재 기획, 홍보부장)
- 13:30 - 14:00
- 1. 불교와 법 - 불교와 인간(이명복 동국대학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박형석(변호사)
- 14:00 - 14:30
- 2. 연극적 측면 - 불교의례와 연희적 측면 (김홍우 동국대연극과 명예교수)
- 지정토론 : 김영렬 (전KBS PD, 호치민케이비TV 대표, 연출가, 동국대 외래교수)
- 14:30 - 15:00
- 3. 국문학적 측면(김갑기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진영(충남대 국문학과 교수)
- 15:00 - 15:30
- 4. 범패 관련 - 반 작소리 연구(장희주 박사, 서울대 국악과 박사)
- 지정토론 : 서한범(단국대 국악과 교수)
- 15:30 - 15:40
- 휴식(다과)

15:40 - 16:10

- 5. 티베트 불교 의식의 수행적 의미 - 악樂, 가歌, 무舞 등의 개별적 요소에서 종합 의례까지 - 최로덴(명종)박사, 인도국립박물관 박사, 티베트불교고등연구소 객원 연구원
- 지정토론 : 김현남 박사(원광대 한국문화학과 외래교수)
- 16:10 - 16:40
- 6. 한국 무용 관련 - 불교와 무용관련 (이애주 서울대 체육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이병욱(용인대 무용학과 교수)
- 16:40 - 17:10
- 7. 전승적 측면 - 영산재 전승관련(김종영(능화)박사 동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지정토론 : 윤소희(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 17:10 - 17:40
- 8. 한·일 불교음악 관련(이미향 박사 일본음악대 졸업 박사)
- 지정토론 : 황준연(서울대 국악과 교수)
- 17:40 - 18:40
- 종합 토론 좌장 권오성(한양대 국악과 명예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